

KIA 타이거즈, '최지민 일까? 혹은 집단 마무리?'...관심 집중

투수 앤더슨·정해영·김대유, 내야수 황대인·윤도현 2군행
2년차 좌완 최지민, 21경기 2승 1세이브 3홀드...ERA 1.07

최지민일까? 집단 마무리일까?

김종국 KIA 타이거즈 감독은 지난 29일 1군 선수 5명을 2군으로 내려보냈다. 투수 손 앤더슨 정해영 김대유, 내야수 황대인과 윤도현의 엔트리탈을 발표했다.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미 지난 주중 필승조 전상현과 김기훈도 말소한 바 있다.

특히 3년간 73세이브를 올린 마무리 정해영의 2군행은 새로운 마무리를 기용하겠다는 의미였다. 정해영은 투기였던 2020년 6월 말에 1군에 등용한 이후 처음으로 2군으로 갔다.

당시 추격조에서 필승조로 승격했고 2021 시즌부터는 마무리 투수로 2년 연속 30세이브 이상을 거두는 실적을 올렸다.

올해는 스프링캠프부터 구위와 구속이 오르지 않아 시름을 안겼다. 3승1패6세이브, 평균자책점 3.46, WHIP 1.58, 피안타율 2할9푼7리의 성적을 올렸다. 김 감독은 2군에서 구위를 재조정하는 시간을 주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정해영 대신 누가 마무리로 나설 것인지도 관심이다. 일단은 2년차 좌완 최지민(19)이 영순위로 꼽힌다.

올해 21경기에 등판해 2승1세이브3홀드, ERA 1.07의 우등성적을 내고 있다. 최고 150km의 빠른 직구와 슬라이더, 체인지업의 변화구 완성도도 좋아졌다. 좌우타자 관계없이 피안타율 1할9푼5로 강하다.

작년 140km에 그쳤던 구속이 급격하게 올라온데다 제구까지 완성되면서 난공불락의 투수가 되었다. KIA 불펜투수 가운데 가장 강력한 구위를 갖추었다.

원래는 추격조에 편성되었으나 필승조로 승격했다. 이번에는 마무리 투수로 또 한 번의 신분상승을 이룰 태세이다.

다만, 9회에 나오는 마무리 투수라는 심리적인 부담을 이겨야하는 숙제가 있다. 세이브 경험은 있다. 5월 17일 대구 삼성전에서 9회에 마무리로 나선 정해영이 위기를 맞이하자 구원등판해 세이브를 따냈다. 최지민이 만일 9회의 부담을 이겨낸다면 KIA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다.

최지민 단독이 아닌 집단 마무리 체제로 운용할 수 있다. 좌완 이준영도 뛰어난 구위를 과시하고 있다. 19경기에 등판해 4홀드, ERA 1.50을 기록하고 있다.

다만 좌타자(135)에 비해 우타자 피안타율



(375)이 높다는 점이 걸림돌이다. 우완 장현식도 아직은 제구와 구위가 100% 상황은 아니

다. 최지민이 뒷문지기로 나설 것인지도 눈길이 쏠린다. 이슬비기자



28일 강원도 원주시 성문안 컨트리클럽에서 열린 KLPGA 투어 제11회 E1 CHARITY OPEN 제1라운드에서 우승을 차지한 방신실이 트로피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KLPGA 제공)

방신실, 여자골프 세계랭킹 233위→110위로 상승
고진영, 2주 연속 세계 1위 지켜...김효주 10위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에서 처음 우승한 방신실이 세계랭킹 110위로 올라섰다. 30일 발표된 여자골프 세계랭킹에서 방신실은 지난주 233위보다 123계단이 오른 110위에 자리했다.

방신실은 지난 28일 강원도 원주에서 끝난 KLPGA 투어 제11회 E1 CHARITY OPEN에서 우승했다.

KLPGA 투어 첫 우승으로 방신실은 상급과 대상포인트 6위, 신인상 포인트 3위에 올랐다.

고진영이 2주 연속 세계 1위 자리를 지킨 가운데 벨리 코르다(미국), 리디아 고(뉴질랜드), 릴리아 부(미국), 이민지(호주)가 2-5위를 유지했다.

김효주는 10위에 자리해 고진영과 함께 한국 선수 2명이 톱10에 포함됐다.

최근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벙크 오브 호프 매치플레이에서 우승한 파지리 아나나루간(태국)은 97위에서 65위로 순위가 상승했다.

포체티노, 첼시 감독 확정...4년만에 EPL 컴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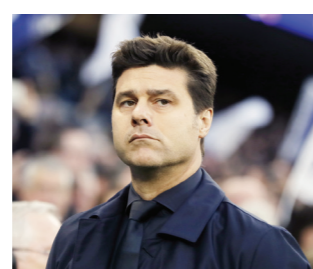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이 결국 첼시로 왔다. 손흥민이 토트넘 홋스퍼에 계속 남는다면 다음 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에서 사제 대결을 펼치게 된다.

첼시 구단은 29일(한국시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포체티노 감독이 2023-2024 시즌부터 팀을 이끌게 됐다고 발표했다. 첼시는 포체티노 감독과 오는 7월 1일부터 2년 계약을 맺었으며 구단 옵션으로 추가로 1년 더 연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로렌스 스투어트 및 폴 윈스탠리 공동 스포츠 디렉터는 "포체티노 감독의 경험과 탁월한 리더십은 앞으로 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그는 여러 리그에서 최고 수준으로 일한 지도자다. 그의 정신과 전술적 접근은 첼시 감독 후보로 손색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토트넘 보렐리 구단주는 "포체티노 감독이 첼시로 합류하게 되어 기쁘다. 뛰어난 실적을 가진 세계적인 수준의 감독으로 우리는 그가 팀에 합류하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포체티노 감독은 선수 시절 에스파냐, 파리 생제르맹, 지롱댕 보르도 등에서 활약했다. 1991년에는 아르헨티나의 20세 이하(U-20) 대표팀에 포함돼 포르투갈에서 열린 국제 축구연맹(FIFA) 세계 청소년 선수권(현 FIFA U-20 월드컵)에 참가하기도 했다. 포체티노는



대회 조별리그 1차전에서 남북한 단일 팀과 경기를 펼쳤을 당시 아르헨티나의 주장이었다. 2002년 FIFA 한일 월드컵에서도 아르헨티나 대표팀 선수로 활약하기도 했던 포체티노 감독은 2009년 에스파냐를 시작으로 지도자 생활을 시작했다.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사우샘프턴을 이끈 포체티노 감독은 2014년 토트넘의 지휘봉을 잡아 팀을 사상 첫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결승까지 이끌었다.

2019년 토트넘에서 경질된 포체티노 감독은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파리 생제르맹을 이끌었다.

포체티노 감독이 첼시의 지휘봉을 잡으면서 4년 만에 EPL에 복귀하게 됐다. 포체티노 감독은 2013년 10월과 2015년 9월 2016년 2월, 2017년 4월 등 네 차례에 걸쳐 EPL 이탈의 감독상을 받았고 2018-2019 시즌에는 런던 축구 올해의 감독상을 수상하는 등 EPL과 인연이 깊다.

동강대 임주찬, 고교·대학 야구 올스타전 출전...“태극마크 달고 싶다”

오는 6월 6일 대전서 첫 개최...올해 유격수 활약

동강대학교 야구부 임주찬이 올해 처음 열리는 고교·대학 올스타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동강대는 야구부 임주찬(2학년·내야수)이 6월 6일 대전에서 열리는 '제1회 한화 이글스배 고교·대학 올스타전'에 출전한다고 30일 밝혔다.

KBO 10개 구단 스카우트가 선발한 고교·대학 올스타에 이름을 올린 임주찬은 올해 대학야구 U리그에서 유격수로 활약하고 있다.

빠른 발을 앞세운 안정된 수비와 장타까

지 겸비한 임주찬은 U리그 9경기에서 타율 0.265(34타수 9안타), 10타점, 6득점, 2도루를 기록했다.

안타 9개 중 2루타와 홈런이 각각 3개로 OPS 0.943(출루율 0.325·장타율 0.618)을 기록해 팀 내 공격기여도가 최하다.

임주찬은 "프로구단 스카우터들에 의해 올스타로 뽑혀 실력을 보여 줄 좋은 기회로 생각하고 있다"며 "나만의 야구를 통해 프로 무대에서 뛰고 태극마크도 달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제1회 한화 이글스배 고교·대학 올스타전에는 투수 9명, 포수 3명, 내야수 7명, 외야수 5명 등 각 포지션별 선수 24명이 선발됐다.

한자어아시아게임 예비엔트리에 이름을 올린 고교·대학 선수들이 대거 참가한다. 경기는 이글스TV를 통해 중계방송된다.

서선욱기자

'이대훈 후계자' 진호준, 세계선수권 데뷔전서 은메달 수확

"아시안게임에선 반드시 금메달 따겠다"...여자 57kg급 이한나, 8강 탈락



은퇴한 '태권도 스타' 이대훈의 뒤를 이을 후계자로 꼽히는 진호준(21·수원시청)이 세계선수권대회 데뷔전에서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진호준은 29일(현지시간) 아제르바이잔 바쿠의 크리스탈홀에서 열린 2023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남자 68kg급 결승에서 영국의 브래들리 신든에 라운드 점수 0-2로 저 은메달을 따.

이번 대회에서 세계선수권에 데뷔한 진호준의 개인 첫 메달이다.

세계태권도연맹(WT) 세계랭킹 6위 진호준은 8강에서 자이드 카림(요르단·2위), 준결승에서 울루그벡 라쉬도프(우즈베키스탄·3위) 등 상위 랭커들을 줄줄이 격파하고 결승까지 올랐지만, 1위 신든의 벽은 넘지 못했다.

1라운드 내내 신중하게 탐색전을 펼친 진호준은 종료 39초를 남기고 신든에게 머리 공격을 허용해 3점을 내줬고, 승부를 뒤집는 한 방 없이 라운드를 마쳤다.

진호준은 2라운드 시작 4초 만에 몸통 공격을 내주고 2점을 헌납했다. 신든은 이후 진호준이 공격할 때마다 맞공격으로 점수차를 벌렸고, 7점차로 달아나 승기를 굳혔다.

진호준은 이대훈 대표팀 코치가 2021년 열린 2020 도쿄올림픽을 끝으로 은퇴한 후 이 체급에서 계보를 이어줄 것으로 기대를 받는 유망주다.

경기 후 진호준은 "큰 대회에서 메달을 딸 수 있어서 영광이다. 최선을 다해 준비한 만큼 우승을 하길 바랐는데 메달 색이 살짝 아쉽다"며 "아제르바이잔에 온 날부터 매일 금메달이 간절했다. 우승만 생각했는데 생각했던 결과가 아니라서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만족한다"고 밝혔다.

아쉽게 우승을 놓쳤음에도 상위 랭커를 줄줄이 제압한 진호준은 "이전에 대결한 적이 있어서 생각하며 경기할 수 있었다. 계속 상위 랭커들과 붙다보니 실력이 느는 것 같다"며 "아시안게임에서도 불을 선수들이다. 영상을 보고 분석하고 연구해 아시안게임에서는 금메달을 목에 걸겠다"고 다짐했다.

"포스트 이대훈"에 대해 진호준은 "당연히 부담된다. 하지만 (이)대훈이형 빈자리를 조금이라도 메울 수 있어 다행"이라며 "선수촌에 있을 때부터 대훈이형에게 많이 배웠다.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셔서 경기에 반영했다. 덕분에 좋은 경기를 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자신의 강점으로 "1점 싸움을 잘하는 것"이라고 밝힌 진호준은 "앞으로 더 열심히 준비해서 그랑프리 대회, 아시안게임에서는 금메달을 따겠다"며 "파리올림픽까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재차 각오를 다졌다.

여자 57kg급에 출전한 이한나(18·대전체고)는 8강전에서 헝가리의 루아나 마르통에 라운드 점수 1-2로 저 탈락했다.

이한나는 지난해 불기리아 소피아에서 열린 태권도 세계유소년선수권대회 여자 59kg급에서 우승한 신성이다.

이한나는 3라운드 중반 2-7까지 뒤졌지만 몸통 공격에 성공한 뒤 감점을 이끌어내 6-9로 따라붙었다.

경기 종료 10초를 남기고는 오른발을 상대 머리에 적중시켜 9-9 동점을 만들었다. 공격 순간에는 점수가 인정되지 않았지만 황경선 코치가 신성한 비디오 판독 결과 이한나의 공격이 성공한 것으로 판정이 번복됐다.

동점으로 경기가 끝났지만 심판은 마르통의 승리를 선언했다.

동점일 경우 고난이도 기술 성공 횟수, 감점 횟수 등을 집계해 승자를 가린다. 3라운드에서 두 선수의 머리 공격 횟수는 각각 1회로 같았지만, 몸통 공격을 3번 성공한 마르통이 2번에 그친 이한나를 앞섰다.

경기 후 이한나는 "세계선수권 출전이 처음이라 결정적인 순간에 발이 안 나가는 등 긴장했다. 부족한 점을 보완해 앞으로 더 좋은 선수가 되겠다"고 전했다.

이한나를 꺾은 마르통은 결승까지 진출해 금메달을 수확했다.

세계선수권 첫 날인 이날 남자 68kg급, 여자 57kg급 준결승전이 치러지기에 앞서 대회 개막식이 열렸다.

일함 알리에프 아제르바이잔 대통령, 메흐리안 알리에바 아제르바이잔 부통령 부부, 세르미양 응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부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태권도 시범단이 BTS 음악 등에 맞춰 각종 태권도 동작과 격파 시범을 선보였다.

시범단은 아제르바이잔 전통복장을 입고 고난도 동작을 선보여 관중들의 호응을 얻기도 했다.

뉴스스